

현대차 ‘모터스튜디오’ 12년 공간 철학, 영화로 담았다

자동차 전시 넘어 복합 콘텐츠 경험
6개 거점, 매년 130만명 이상 방문

현대자동차가 브랜드 체험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의 자동차 전시장을 넘어 사람과 문화,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진화한 12년의 여정을 영화로 기록했다.

현대차는 현대 모터스튜디오의 공간 철학과 변화 과정을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더 스튜디오: 바퀴 위 공간에서, 땅 위의 공간으로’를 21일 개봉한다고 밝혔다. 2014년 서울에서 첫선을 보인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차량을 보여주는 공간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자동차와 브랜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는 복합공간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현재 서울·하남·고양·부산과 중국 베이징, 인도네시아 스나안파크 등 6개 거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매



‘더 스튜디오’ 주요 스틸컷 중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의 외관 전경

/현대차

년 13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이번 다큐멘터리 연출은 ‘이타미 준의 바다’의 정다운 감독이 맡았으며 자동차라는 바퀴 위 공간’에서 출발해 지역과 문화에 스며드는 ‘땅 위의 공간’으로 확장된 현대 모터스튜디오의 공간 철학을

조명한다. 건축가와 디자이너, 운영 담당자, 문화예술 관계자, 방문객 등의 시선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현된 공간의 의미를 담아냈다.

특히 현대차는 모터스튜디오를 단순한 브랜드 홍보 공간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

의 시도와 실험이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자동차를 중심에 두면서도 건축·예술·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과 지역사회가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를 추구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는 10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건축 모형과 초기 스케치 등을 선보이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수장고: 12년의 기록’ 특별전 시도 개최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자동차를 넘어 사람과 문화,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더 넓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12년 동안 공간을 만들어온 사람들과 이를 경험한 방문객이 함께 쌓아온 이야기를 영화에 담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우리금융, 스포츠 꿈나무 성장 지원

우리금융이 취약계층 스포츠 꿈나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 ‘우리드림브릿지’를 출범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9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사회공헌 콘서트 ‘2026 우리 모모콘’을 개최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GS리테일, 소비자리더 장학증서 수여

GS리테일이 소비자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후원을 18년째 이어가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GS강서N타워에서 ‘2026 GS SHOP 소비자리더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18일 소비자리더 장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증서를 전달하고 홀스핑 방송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GS리테일



현대엔지니어링, 현충원 봉사활동

현대엔지니어링은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지난 19일 임직원 가족과 국립서울현충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신한은행, 흥천에 나무 심어 숲 조성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강원도 흥천군 방내리 일대에서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레닛과 함께 ‘솔(SOL)방울 포레스트(FOREST)’ 2차년도 식재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구상나무 식재에 참여해 포즈를 취했다.

/신한은행



소진공,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교육부·인사혁신처 인증을 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유오 상임이사(오른쪽)가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교육부·인사혁신처 인증을 받고 있다.

/소진공



롯데케미칼 임직원 및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전남광주 여수 금오도 일원에서 해양환경 정비활동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금오도 거머리말 복원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앞장
거머리말 약 2만주 이식

롯데케미칼이 국립공원공단과 전남 여수 금오도의 거머리말 군락지를 복원해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흡수원 확대를 추진한다.

롯데케미칼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일원에서 해초지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블루카본(Blue Carbon) 저장원인 거머리말 군락지를 복원해 해양생태계를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 시작

한 1차 복원사업에서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 일원에서 거머리말 약 2만주를 채취해 금오도 해역에 이식했다.

향후 국립공원공단과 이식한 거머리말의 생육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복원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초지 복원사업과 연계한 환경보호 활동도 진행했다. 롯데케미칼 임직원과 국립공원공단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18일 금오도 일원에서 합동 해양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여수 도서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환경 놀이’ 교육도 진행해 미래 세대에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 실천 방법을 알렸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E&A, 임직원 가족과 사옥 투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삼성E&A는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GEC(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에서 임직원 가족초청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세 차례 행사에는 임직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무공간과 산책로, 옥상 정원, 홍보관 등을 둘러보며 스탬프 모으기 미션을 수행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심폐소생술과 비상대피, 소화기 사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았다.

사옥 곳곳에는 포토존과 셀프 포토부스가 마련됐다. 가족들은 사내 식당에서 식사한 뒤 미술 공원과 경품 추첨에도 참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가족에게는 명예사원증과 기념 선물이 제공됐다.

삼성E&A는 가족친화경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가족초청행사를 열고 있다.

삼성E&A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 기자 cr56@

현대백그룹, 창신동에 긴급주택 조성 지원

현대L&C·현대리바트 등 4개 계열사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L&C·현대리바트·지누스·현대그린푸드 등 4개 계열사가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주거복지센터가 진행한 ‘창신동 빈집 활용 긴급주택’ 조성 사업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주택은 화재나 침수 등으로 갑작스럽게 살 곳을 잃은 가구가 새 보금자리를 구할 때까지 머무는 임시 거처다.

이번 사업에서 현대L&C·현대리바트·지누스 등 현대백화점그룹 리빙·인테리어 계열사는 각사의 사업 역량을 토대로 긴급주택 조성을 지원했다.

현대L&C는 바닥재·벽지·인테리어필름 등 건자재와 시공 부자재를 제공하고,

리모델링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인테리어필름 시공 교육과 공간 디자인 멘토링을 진행했다. 현대리바트는 서랍장·옷장·소파·식탁 세트 등 가구를, 지누스는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지원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사업 기간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식사와 간식을 제공했다.

새로 마련된 긴급주택은 종로구 창신동에 있던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58.07㎡(약 48평) 규모의 빈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지상 1·2층에는 긴급주택 4가구, 지하 1층에는 주민 공용 문화공간을 조성했다.

/김서현 기자 seoh@

